

1. 실물경제¹⁾

가.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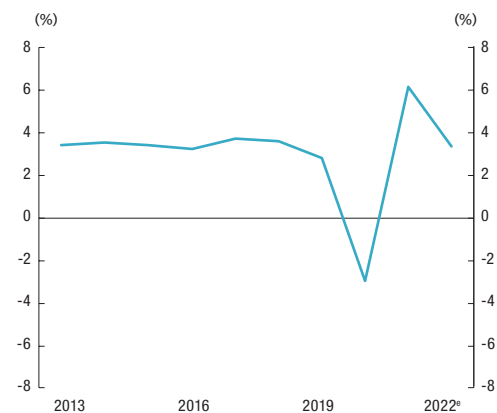
2022년 중 세계경제는 주요국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유로지역은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일본·중국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영향이 주된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세계교역도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OPEC+의 감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2022년 중 세계경제는 주요국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에너지 수급 차질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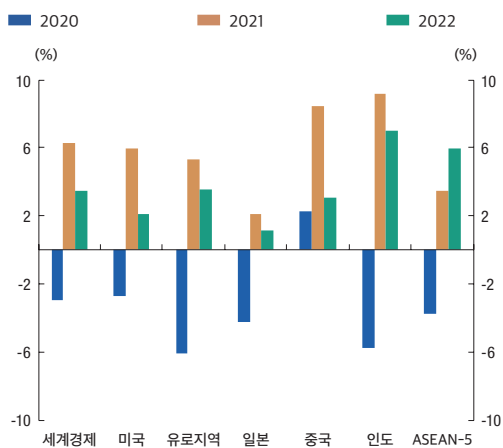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물가상승압력 확대와 이에 대응한 급속한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둔화기조가 지속되었다. 일본의 경우

그림 1 - 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IMF

그림 1 - 2.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자료: IMF, 각국 통계청

1) 2022년 중 경제 동향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12월호. 2023년 3월호.

2) 주요 국제기구의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추정 : IMF 3.4%, OECD·UN 3.2%, World Bank 3.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며 중국은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부동산시장 부진³⁾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인도는 3/4분기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이후에는 대내외여건 악화로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ASEAN 5개국의 경우 수출 호조, 입국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나갔으나 4/4분기 들어 주요국 경기 둔화, IT경기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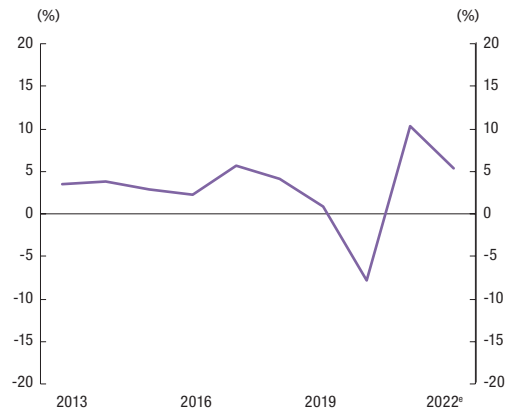
세계교역 부진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⁴⁾. 상품교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교역은 입국 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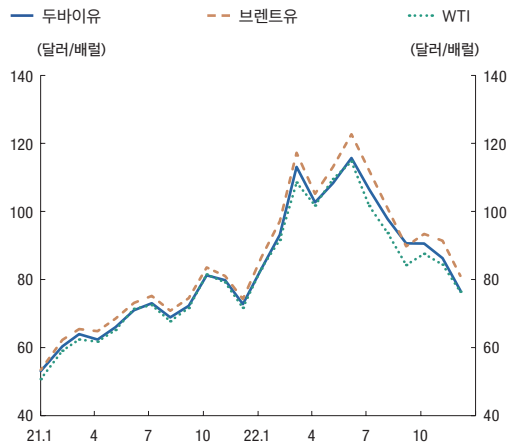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가운데,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⁵⁾. 상반기 중 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발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에 따라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1 - 3. 세계교역 신장률¹⁾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그림 1 - 4.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Bloomberg, Reuters

3) 중국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 둔화, 규제 강화, 소비자심리 악화 등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특히恒大 그룹 사태(2021년 9월) 이후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해외경제 포커스」(제2023-1호)의 「국제경제리뷰: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세계교역 신장률(IMF기준): 2020년 -7.8% → 2021년 10.4% → 2022년 5.4%*

5) 국제유가(두바이유, 연평균, 배럴당 기준): 2020년 42.2달러 → 2021년 69.0달러 → 2022년 97.0달러

글로벌 인플레이션 큰 폭 확대

글로벌 물가는 2022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오름폭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식량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22년 중반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상당폭 완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둔화 시점 및 속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이다.

나.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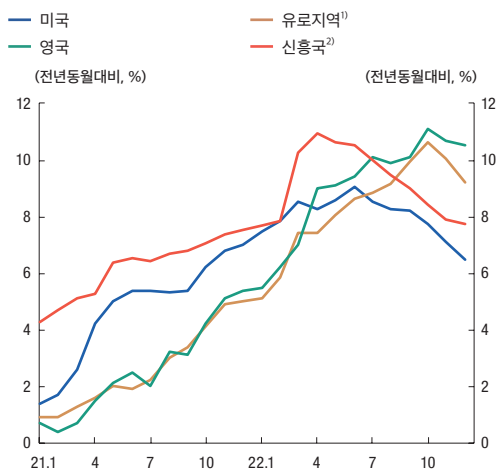
2022년 중 국내경제는 소비의 빠른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1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고용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및 공급측 압력이 모두 높아지면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1) 경제성장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2022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글로벌 공급차질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도

그림 1-5.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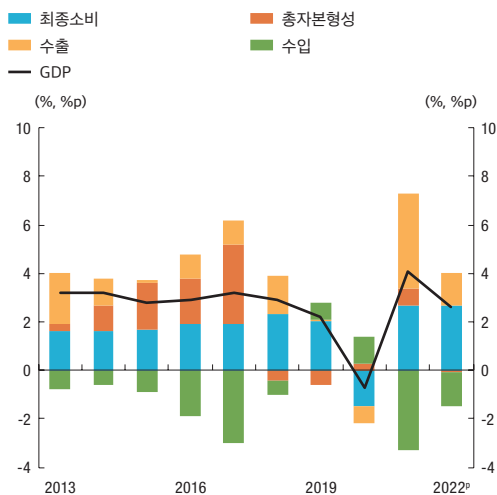


주: 1) HICP 기준

2)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균

자료: 각국 통계청

그림 1-6.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¹⁾



주: 1) 2021년, 2022년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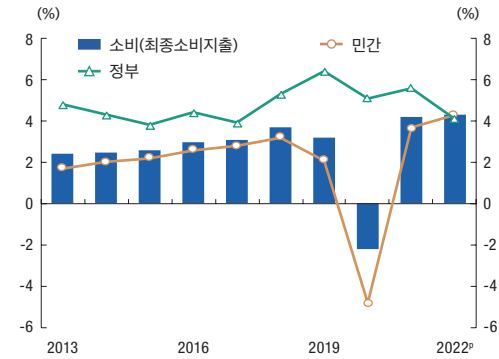
부진하면서 2021년(4.1%)보다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⁶⁾.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상반기(3.0%)보다 낮은 2.2%(전년동기대비)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정부소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⁷⁾. 민간소비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서비스소비 증가 및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⁸⁾. 다만 연말로 갈수록 펜트업 수요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⁹⁾. 설비투자는 주요 IT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차질,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투자와 기타지식재 생산물투자가 모두 늘면서 4.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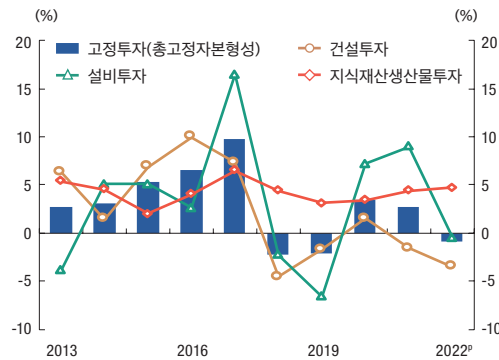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팬데믹 영향(비대면 재화 수요 확대)이 약화되면서 2021년보다 낮은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¹⁰⁾. 재화 수출은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IT경기 하락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림 1 - 7. 소비 증감률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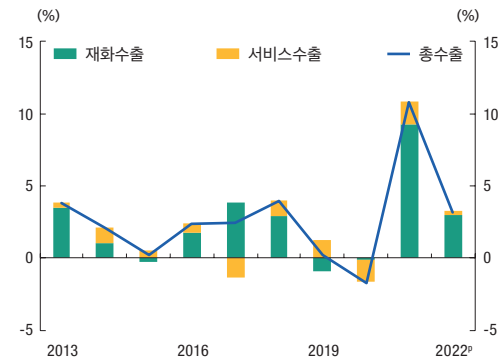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 8. 고정투자 증감률 (실질)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 9. 수출 증감률 (실질)



자료: 한국은행

6) GDP 성장률(실질): 2020년 -0.7% → 2021년 4.1% → 2022년 2.6%

7)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실질): 2020년 -2.2% → 2021년 4.2% → 2022년 4.3%

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실질): 2021년 0.7% → 2022년 2.0%,
2022년 신규 취업자수 81.6만 명(2015~2019년 평균 24.5만 명)

9)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실질): 2020년 3.5% → 2021년 2.8% → 2022년 -0.8%

둔화흐름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수출도 글로벌 물동량 둔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수출 경기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재화 수입 증가세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 회복 지원 등으로 서비스 수입도 부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3.7%의 증가율을 보였다¹¹⁾.

제조업 성장세 둔화 및 서비스업 성장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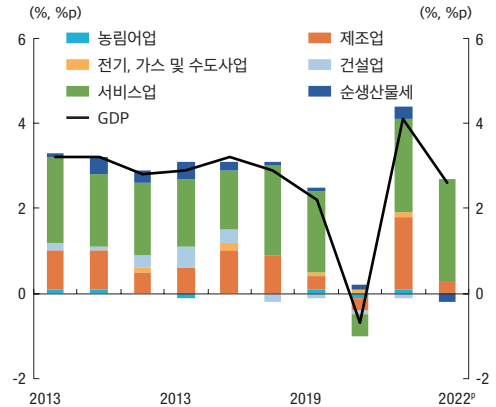
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제조업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성장세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지난 1~2년간 누적된 착공면적 증가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하였다.

제조업은 IT부문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부문도 대체로 부진하며 2021년(6.9%)보다 크게 낮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글로벌 IT경기 하강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IT부문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글로벌 공급차질 완화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의 여타 업종들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서비스업은 2021년(3.8%)보다 높은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업서비스,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그림 1 - 10.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표 1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제조업	3.7	3.3	1.1	-1.1	6.9	1.4
화학제품	3.4	2.5	-0.9	-0.3	5.7	-3.7
1차금속	2.9	-3.8	-0.9	-3.3	5.6	-5.7
금속제품	-0.3	-1.3	-1.8	-6.3	-3.5	-4.0
컴퓨터, 전자 및 광학	4.8	11.4	6.4	5.2	12.9	7.9
기계 및 장비	22.5	0.7	-0.9	1.0	11.2	1.6
운송장비	-8.1	-2.3	1.9	-10.1	5.4	9.2

자료: 한국은행

표 1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서비스업	2.6	3.8	3.4	-0.8	3.8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	2.9	3.5	-5.6	3.4	6.8
운수업	2.7	3.7	1.7	-17.3	5.3	9.2
금융 및 보험업	4.2	5.6	3.4	9.6	6.7	2.4
사업서비스	2.0	3.8	2.6	0.1	2.8	2.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6.4	8.2	9.8	1.1	5.2	6.2

자료: 한국은행

10)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실질): 2020년 -1.7% → 2021년 10.8% → 2022년 3.2%

11)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증가율(실질): 2020년 -3.1% → 2021년 10.1% → 2022년 3.7%

0.3% 증가하였다. 농림어업(-1.3%)은 감소로 전환하였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9%)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수 큰 폭 증가

고용상황은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81.6만 명) 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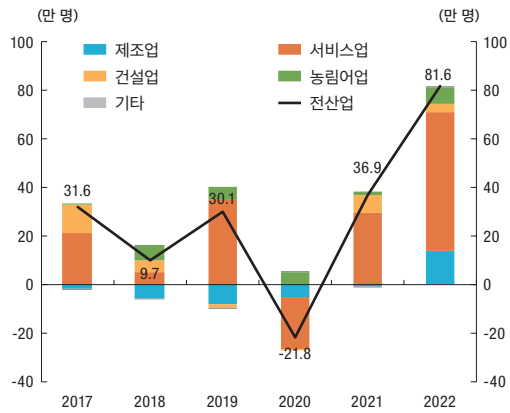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였으나, 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일상 회복 등으로 보건·복지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기·전자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증가 전환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자수도 증가 전환하였다.

연령별로는 30~59세 및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5~29세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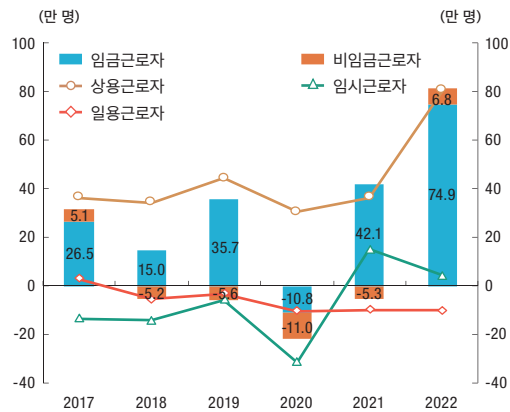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4%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1 - 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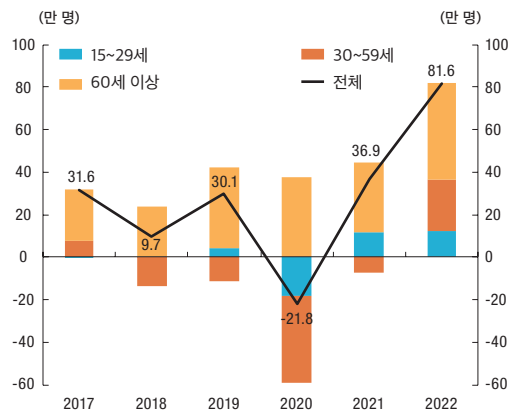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 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1 - 1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임금 상승폭 확대

명목임금은 4.9% 상승하여 2021년(4.6%)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건조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정액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시간당 명목임금이 큰 폭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3)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22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전년 대비)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상회하며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 3%대에서 가파르게 높아져 7월 중 6.3%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연말 경에는 5%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였다.

물가 오름세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높아진 데다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커진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상당폭 완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확대되다가 4/4분기 들어 상당폭 낮아졌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반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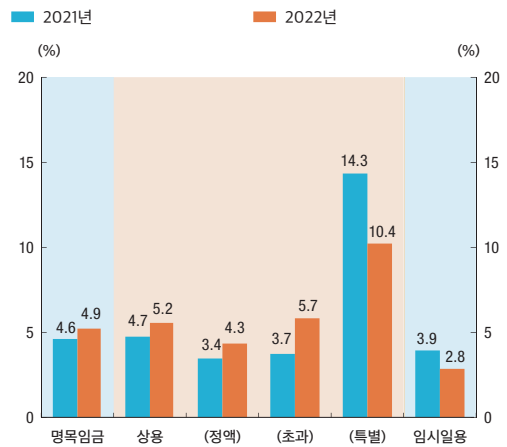
표 1-3. 고용 관련 지표

(만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활동인구	2,775	2,790	2,819	2,801	2,831	2,89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2	0.5	1.0	-0.6	1.1	2.2
경제활동 참가율	63.2	63.1	63.3	62.5	62.8	63.9
취업자수	2,672	2,682	2,712	2,690	2,727	2,809
취업자수증감	31.6	9.7	30.1	-21.8	36.9	81.6
실업률	3.7	3.8	3.8	4.0	3.7	2.9
(15~29세)	9.8	9.5	8.9	9.0	7.8	6.4
고용률	60.8	60.7	60.9	60.1	60.5	62.1
(15~64세)	66.6	66.6	66.8	65.9	66.5	68.5

자료: 통계청

그림 1-14.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표 1-4. 임금 지표 상승률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명목임금 ¹⁾	3.3	5.3	3.4	1.1	4.6	4.9
(실질임금) ²⁾	1.3	3.7	3.0	0.5	2.0	-0.2
시간당 명목임금 ³⁾	5.2	6.8	3.9	2.6	4.5	6.2
노동생산성 ⁴⁾	3.9	4.5	1.9	1.8	2.8	1.4
단위노동비용 ⁵⁾	1.3	2.2	2.0	0.8	1.7	4.7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어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름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반면 석유류제의 공업제품가격은 그간 높아진 국제식량가격 등 원자재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었다.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원가상승부담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¹²⁾.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물가가 1%를 밑도는 낮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집세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하였으나 개인서비스물가는 외식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2022년 중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3.6%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며 2008년(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기록한 7월 이후에도 4개월간 오름세 확대 흐름을 이어가다가 연말에서야 소폭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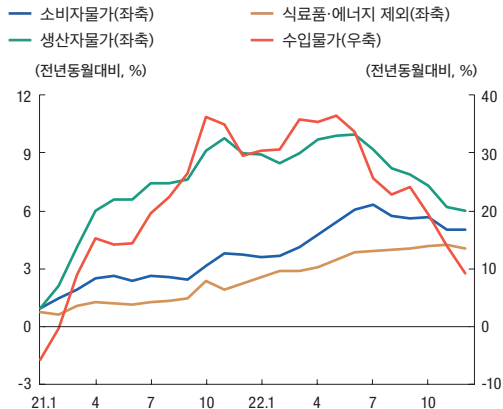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

주택 매매가격은 금리 상승,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여 연중 4.7% 하락하였다¹³⁾.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21년 중 오름폭이 컸던 일부 지역¹⁴⁾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대전, 세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여타 시도도 하락하였다.

주택 전세가격 또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 등으로 하락하였다¹⁵⁾. 반면 주택 월세가격은 수요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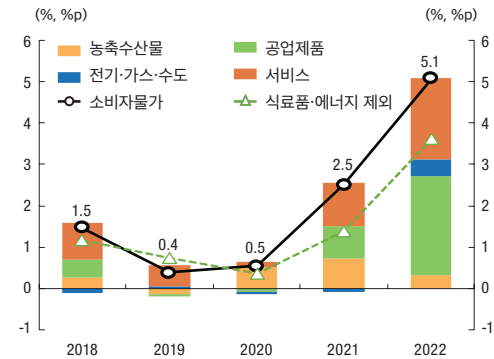
12) 2022년 중 전기료는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9.3원/kWh 인상되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47원/MJ 인상되었다.
 13) 전국 실거래가지수(매매가격, 공동주택 기준) 기준으로는 연중 14.3% 하락하였다.
 14) 2021년 중 수도권 광역교통망(GTX) 관련 기대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경기 시흥, 경기 의왕, 인천 연수구의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대비)은 2022년에 각각 10.4%(2021년 +30.4%), 12.7%(+30.0%), 15.0%(+34.7%) 하락하였다.
 15) 전국 실거래가지수(전세가격, 아파트 기준) 기준으로는 연중 9.4% 하락하였다.

그림 1 - 15. 주요 물가 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표 1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21			2022			
	06~10 평균	11~15 평균	16~20 평균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2	2.0	1.7	9.9	-4.7	0.2	-4.9
<수도권>	7.9	0.2	2.8	12.8	-6.5	-0.1	-6.4
<비수도권>	2.4	4.1	0.6	7.4	-3.0	0.5	-3.5
주택전세가격	4.7	5.2	0.7	6.5	-5.6	0.0	-5.6
주택월세가격	-0.3	2.6	1.0	0.9	0.1

자료: 한국부동산원

(4)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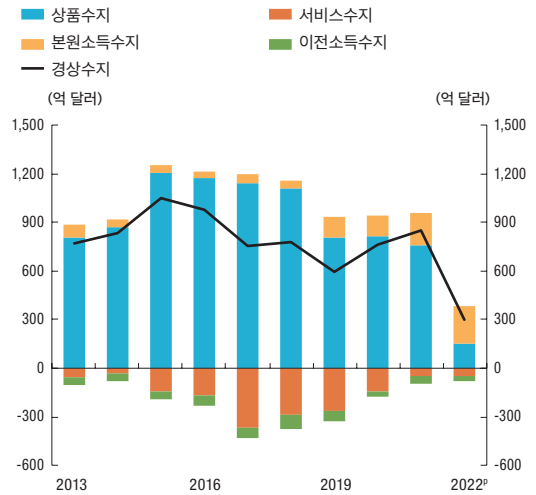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 축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축소된 2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⁶⁾. 상품수지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더불어 수출이 주요국 성장세 약화, IT경기 하락으로 둔화된 점도 일부 작용하였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해상운임에 힘입어 운송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이 줄었으며, 본원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지급이 줄어들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상품 수출 호조 이후 점차 둔화

수출(통관 기준)은 상반기 호조에 힘입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¹⁷⁾인 6,8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및 IT를 중심으로 부진하는 등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었다.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부진과 단가하락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가 부진하였다. 비IT제품도 화공품·기계 등 대부분의 경기민감 품목이 둔화되었다. 다만, 자동차는 공급차질 완화,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석유제품도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이 지속되며 큰 폭 증가하였다.

그림 1 - 17.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표 1 - 6. 주요 품목별 수출 (%)

	2021		2022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제품	24.0	<35.3>	2.5	<34.1>
반도체	28.1	<20.2>	1.3	<19.3>
무선통신기기	24.7	<3.0>	-10.4	<2.5>
디스플레이패널	18.9	<3.3>	-1.1	<3.1>
컴퓨터	27.0	<2.6>	7.8	<2.6>
비IT제품	26.7	<64.7>	8.1	<65.9>
화공품	38.1	<14.3>	6.6	<14.3>
자동차	23.8	<10.8>	12.3	<11.4>
석유제품	57.0	<6.0>	63.1	<9.3>
기계류	10.5	<8.9>	0.3	<8.4>
철강	32.9	<8.2>	5.1	<8.1>
총수출 ¹⁾	25.7	[6,444]	6.1	[6,836]

주: 1)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16) 경상수지: 2019년 597억 달러 → 2020년 759억 달러 → 2021년 852억 달러 → 2022년 298억 달러

17) 연간 수출액 상위 3개년도: ① 2022년 6,836억 달러, ② 2021년 6,444억 달러, ③ 2018년 6,049억 달러

상품 수입 큰 폭 증가

수입(통관 기준)도 에너지 수입¹⁸⁾ 급증으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7,3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의 영향을 받아 원유, 가스 및 석탄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기·전자기기, 곡물·직접소비재(음식료품)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서비스수지는 팬데믹 특수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적자폭이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⁹⁾. 운송수지는 전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화물운임이 이어지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행수지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관광 위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였으며, 가공서비스수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5) 지역경제동향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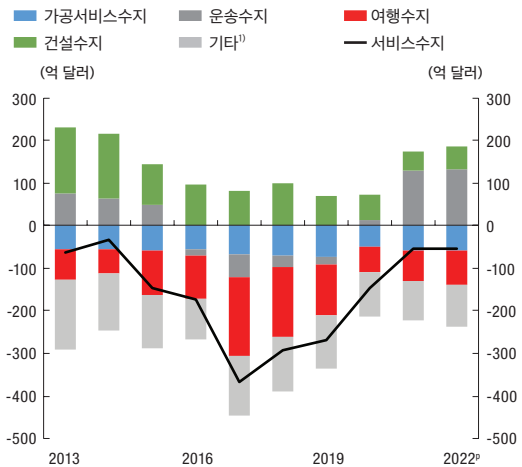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호남권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충청권은 IT 경기 둔화, 대경권은 포항제철 침수 및 휴대폰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표 1-7. 주요 품목별 수입 (%)

	2021		2022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46.7	<49.2>	30.1	<53.8>
에너지	54.2	<18.3>	69.7	<26.1>
자본재	20.2	<34.6>	7.5	<31.3>
전기·전자기기	21.5	<20.7>	13.4	<19.8>
기계류·정밀기기	20.9	<11.4>	-1.9	<9.4>
(반도체제조장비)	50.1	<4.3>	-10.6	<3.2>
소비재	18.3	<16.2>	9.1	<14.9>
총수입 ¹⁾	31.5	[6,151]	18.9	[7,314]

주: 1)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관세청

그림 1-18.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18) 3대 에너지 수입액: 2019년 1,086억 달러 → 2020년 730억 달러 → 2021년 1,126억 달러 → 2022년 1,910억 달러

19) 서비스수지: 2019년 -268억 달러 → 2020년 -147억 달러 → 2021년 -53억 달러 → 2022년 -55억 달러

20) 2022년 중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12월호.

수요동향²⁾을 살펴보면 민간소비(소매판매액 지수 기준)는 물가 및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축착공면적이 동남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제주권은 농산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대부분 권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제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전기·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되면서 전 권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 전환하였다.

표 1 - 8. 2022년 권역별¹⁾ 주요 지표^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3.7	3.2	-0.5	0.0	-0.7	6.0	1.4
서비스업생산지수 ²⁾	4.9	4.9	4.2	3.5	3.0	5.5	8.6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0.2	0.7	-0.9	-1.5	-0.4	-0.6	-0.1
설비투자 BSI ³⁾	97	92	95	94	92	94	97
건축착공면적 ²⁾	-21.5	2.2	-14.8	-26.7	-21.2	-16.1	9.3
수출 ⁴⁾	2.5	9.5	4.9	12.5	10.2	0.7	-13.9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⁵⁾	55.7	4.1	8.2	0.5	6.2	0.8	1.9
실업률	3.0	3.1	2.3	2.9	2.7	3.2	2.1
물가							
CPI ⁶⁾	4.8	5.0	5.5	5.4	5.5	6.0	5.9
주택매매가격 ⁷⁾	-6.5	-3.8	-3.6	-1.2	-4.2	0.5	-0.2
주택전세가격 ⁷⁾	-8.0	-3.2	-4.2	-1.6	-5.0	-0.3	0.0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2)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